

남도소리의 소개

I. 판소리의 개념

1. 탈 전통성

탈춤이 무용과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 예술이라면 판소리는 음악과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 예술이다. 이처럼 같은 종합 예술이라 하더라도 탈춤에 있어서는, 무용이나 가면은 비교적 정제된 양식을 갖추고 있지만, 연희의 중심을 이루는 문학적인 내용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련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판소리는 비록 무용이 경시되는 점이 있긴 하지만, 중심을 이루는 음악과 문학은 심미적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종합 예술로서의 가치는 판소리쪽이 좀더 높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탈춤은 아직도 종교적인 제례 의식의 전통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나, 판소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제례의식의 굴레를 벗어난 독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탈춤보다 한걸음 앞선 신흥 예술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2. 정통성

판소리 창조자들은 문학적인 내용의 전개를 가장 유효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음악적인 수단을 총동원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속적인 전래 음악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불교 음악을 따오기도 하고, 때로는 민중 속에 사무쳐 있는 민요를 부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가곡이나 악장의 창법을 응용하기도 한다. 문학적인 내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들 판소리 창조자들은 선행했던 모든 음악적 유산을 도입하여 원용하는 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판소리 음악이 악보와 규칙과 절제에 얽매인 전통 음악을 탈피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었다. 기성 권위의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에는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태동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3. 예술성

만일에 판소리 음악을 민속 음악이라 한다면 그 음악이 그렇게도 중시했던 문학적인 내용, 즉 판소리 사설에도 민속 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날 '춘향전'을 정통적인 문학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문학자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춘향전'을 민족 문학 최고의 고전으로 평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형편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춘향전'이란 다름 아닌 판소리 사설 '춘향가'가 문자상에 정착된 것이다. 판소리 사설은 지난날의 평시조, 양반가사, 양반 소설, 등을 바탕으로하여 그 위에 일상

어 비속어 의성어 의태어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표현 기교를 확립함으로써 정통적인 민족 문학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라 하겠다.

4. 종합성

판소리는 음악·문학·연극의 여러 특징이 결합되어 짜여진 종합예술이다. 판소리의 형태는 창, 아니리, 발림의 3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말하는 '창'이란 음악적인 요소의 이름이고 '아니리'란 창으로 하지 않는 대사의 전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림'이란 배우의 연기, 즉 몸짓을 뜻하는 말이다.

II. 판소리의 구성

1. 판소리의 어의

'판소리'란 말은 「판 + 소리」로 된 복합 명사이다. '판'이란 명사로 결합되는 다른 복합 명사로는 '씨름판' '노름판' '놀이판' 등이 있는데, 이런 '판'은 우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뜻과 아울러 '씨름·노름·놀이'라는 『특수한 행위가 운영되는 곳』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소리'는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는가. 우선 우리의 전통 음악중 성악을 일컬을 때에 '노래'라는 말과 '소리'라는 말을 구분하여 쓰는 것을 본다. 가곡·가사·시조를 비롯하여 '경기잡가'·'남도소리'라고 한다, 같은 '남도소리'라도 '성주풀이' '홍타령' '육자배기' 등은 소리라고는 하지 않고 오직 '판소리'에 한해서 '소리'라고 불러 왔었다. 따라서, "소리 한 자리 하시오"라고 했을 때와 "노래 한 마디 하시오" 했을 때 청하는 사람의 요구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리'가 왜 이렇게 '노래'와 구별되는 것일까. 우선 '노래'라 하면 『인간의 감정을 음성으로 표현하는 음악』의 일종이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소리'는 '노래'보다는 광범위한 개념을 내포한다.

2. 판소리의 무대적 구성

앞에서 우리는 '판'을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일차적인 뜻을 풀이한 바 있었다. 따라서, '판소리'는 '많은 사람' 즉 구경꾼 『관중 또는 청중』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예술 활동이다. 관중을 전제로 하는 예술 활동이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무대 예술임이 분명하다. 무대 예술에는 반드시 배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판소리는 창만으로 성립될 수는 없다. 창을 맡은 배우 못지 않게 중요한 구실을 맡고 있는 고수가 없어서는 판소리의 무대는 성립될 수 없다. 이른바, '무장단'(고수 없이 창만 부르는 경우)이나 '자작 장단'(창을 하는 사람이 고수를 겸하는 경우)은 어디까지나 변칙적인 공연이고,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고수가 있어야 판소리의 '판'은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판소리의 공연 형태는 독연물이 아니라 창자와 고수가 공연하는 2인 무대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Ⅲ. 판소리와 더불어

홍보가중에서

장금순(국악경연대회 입상)

♫중중모리

홍보가 좋아라, 박홍보가 좋아라고 돈을 가지고 논다. 돈종다 돈종다 얼씨구나 돈종네 잘난 사람도 못난돈 못난 사람도 잘난돈 맹상군의 술레바퀴처럼 둥굴둥굴 생긴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 돈종네 우리집에 가난키로 삼남에 유명터니 오늘날 부자가 되니 석순이를 부러허며 도주공을 내가 부러허랴 여보아라 큰 자식아 예~건넌 마을 건너가서 너의 백부님을 모셔오너라. 경사를 보아도 형제안고 보자. 얼씨구나 절씨구 홍보마누라도 좋아라고 춤을 추면서 나온다. 얼씨구나 나도 종네 얼씨구 절씨구야 어와 세상 여러분네들 이내 말씀들 들어보소. 언충신 행동경 마음씨만 잘 먹으면 이런 경사를 보시리다.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헌 사람 팔세마소. 나도 오늘날 제비덕에 쌀과 돈이 많이 생겼으니 기민구제를 헐라네. 불쌍허고 가련헌 사람들아 홍보집을 찾아오소.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종네 얼씨구나 으종네. 얼씨구나 절씨구.

♫아니리

여보 마누라 이 박속에서는 쌀과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저 둘째 통엔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 또 갖다놓고 탐시다. 그럼시다.

♫중중모리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시리령 실건 당겨주소. 이 박을 타고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은금보화만 나오너라 은금보화 나오면은 우리 형님전에 바칠란다. 시리령 실근 시리령 실근 시리령 실근 시리령 실근 시리령 실근 당 거 주소.

♫아니리

여보 영감 나는 이박 안 탈라요. 어째서 안타

♫중모리

나는 나는 나는 안 탈라요 형제간이라 잊으셨소 엄동설한 치운 날에 솟헌 어린것들과 구박당허던 일 생각허면 곱 속에 들어도 못잊겠소. 나는 나는 나는 안탈라요. 홍보듣고 화를 내며 타지 말어라 타지 말어. 안 탈라면 말려므나 갑갑헌 사람아 내 말 들소. 여자라 허는 것은 상하 의복이로다. 수족 한 번 떨어지면 둘다 병신이 되느니라. 으리 형님은 아차 한 번 돌아가시면 조선팔도 너~른 곳에 얼굴인들 어디서 보겠느냐. 안탈라면 말려므나. 홍보 마누라 이말을 듣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잘못되얏소. 다시는 그런 말 안 허리다. 암은 그래야제.

♫중중모리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시리령 실건 당겨주소. 강상의 동동뜰배 수천석을 실었은들 내 박한 통을 당혈손가. 시리령 실근 시리령 실근 시리령~실근 시리령 실건 당건주소.

♫ 휘모리

시리렁 씩씩 시리렁 씩씩 실근 실근 시리렁 씩씩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씩씩 실근 씩씩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씩씩

♫ 아니리

박이 짹 벌어지니 박통 속에서 웅갓 비단이 다 나왔겠다. 홍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당신 나한테 시집 온 후로 이렇게 많은 것 처음 보았제. 우리 비단 본짐에 색깔이 무엇무
엇인지 어디한번 골라 봅시다. 그럼시다 영감 홍보. 마누라가 비단색깔을 고르는다.

♫ 중중모리

붉은단 퍼런단 일광단 월광단 서황모 요지연의 진상 허든 천도문 적설이 만공산 허니 절
개있는 송죽단 등태산 소천하에 공부자의 대단. 남양초당의 경 좋은데 만고 재상의 와룡단
오랑캐를 내 몰았소. 태평건곤의 대원단 쓰기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은조사며 부귀다복 복
수단 삼순구식의 궁초로다. 길주명천가는 배 강진 해남 흑단 세모수 한산 모시 임천 모수
생수 삼판 의사 감사까지 그저 꾸역 꾸역나와 홍보 집에 부자가 되네

♫ 아니리

여보 마누라 우리 비단 본짐에 옷 한벌씩 해 입읍시다. 그럼시다. 영감은 무슨 색깔이 좋
소. 나는 평생을 입어도 겹지않은 흑공단이 제일 좋데. 마누라는 무슨 색깔이 좋소. 나는
삼희장 저고리에 송화색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어디 한벌씩 해 입세. 홍보가 먼저 꾸미는
다.

♫ 중중모리

흑공단 망근 흑공단 갓끈 흑공단 두루마기 흑공단 조끼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바지 흑공
단 버선 흑공단 허리띠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어떤가 날 보소. 영감은 하릴없는 까마귀
같소그러. 홍보 마누라도 꾸미는디 송화색 땡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단의
송화색 속곳 송화색 속속곳 송화색 버선 송화색 허리띠 송화색으로 손구선을 들고 어떻게
날 보시오. 그러고 보니 마누라는 하릴없는 피꼬리갈네 그러

수궁가중에서

김순자(국악대전 대통령상 수상)

♫ 중중모리

화관을 부러라. 화관을 부러들여 토끼화상을 그린다. 동정 유리 청홍연, 금수추파 거북연
적 오징어로 떡갈어, 양두 화필을 덩벽 풀어, 단청 채색을 두루 묻히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천하명산 승지강산 경계 보던 눈 그리고, 봉래 방장 운무중에 내 잘 말던 코 그리고, 난초
지초 윈갓 향초 꽃 따먹던 입 그리고, 두견 앵무 짚어울 제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만화방
창 화림중 펄펄 뛰던 발 그리고, 두 귀난 종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신, 쫓지는 몽득,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인데, 녹수청산에 애굽은 장송 휘늘어진 양류속, 들락날락 오락
가락 양금주춤 기난 토끼, 화중토 얼핏 그러 아미산원 이반륜추들 이에서 더할손가. 아나
옛다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 아니리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생각하니, 어디다 넣어야 물이 한점 안문을까. 생각다 못하여 목을 길게 빼어 목덜미에다가 턱 화상을 넣고 보니, 자, 이만하면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와도 물 한점 물을 길이 없겠구나. 용왕께 하직하고 저회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만류를 해 보는데,

♣진양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허니 무엇 하리가랴느냐. 삼대독자 네 아니냐. 장탄식 병이 든들 뉘 알뜰힌 구완하며, 네 몸이 죽어져서 오연의 밥이 된들, 뉘라 손뼉을 두다리며, 휘여쳐 날려줄 이가 뉘 있더란 말이나.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 마라. 세상이라 허는 데는, 수중인간이 얼른 허면 잡기로만 위주를 한다. 옛날에 너의 부친도 세상구경을 가시더니, 십리사장 모래 속에 속절없이 죽었다. 못가느니라, 못가느니라. 나를 죽여 이 자리에다 묻고 가면 네가 세상을 가지마는 살려두고는 못가느니라. 주부야, 위방불입에 가지를 마라

♣아니리

나라에 환후가 계옵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풍파 있사오리까. 내 자식 충심이 그러 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마는,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만류를 하였구나. 네 충심이 그러할진대,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들어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백발 모친 기체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오. 별주부 마누라가 울며 불며 나오더니.

♣중중모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말이요. 위수과광 깊은 물에 양주 마주더, 맛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제는 다버리고, 만리청산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잇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잇어요. 군신유의 장한 충성 조정사직을 못잇어요, 규중의 젊은 아내 절행지사를 못잇어요.

♣아니리

그 말은 방불하나 뒤 진털발 남생이가 흠일세. 총총히 작별 후에, 수정문 밖 썩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데.

♣중모리

고고천변일류홍, 부상에 높이 떠, 양곡의 잦은 안개 월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 개짓고 회안봉 구름이 떴구나. 노화는 다 눈 되고 부평은 물에 등실 어룡은 잠자고, 잘새는 펄펄 날아든다. 동정여천에 파시추, 금색추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를 찍어다려 뒷발로 창랑을 탕탕, 요리조리 이리저리 요리 양금 덩실 떠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리 과광은 천일 색이라. 천외 무산의 십이봉은 구름밖에 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의 경이라. 오초 난 어이 허여 동남으로 버렸고, 건곤은 어이 하여 일야에 등실 떠, 남훈전달이 밝은데 오현 금도 끊어졌네.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조각달 무관속에 초희왕의 원혼이요, 모래속에 가 잠신하여 천봉만학을 바라보니, 만경대 구름속 학선이 울어 있고, 칠보산 비로봉은 허공에 솟아, 계산파무울차아, 산은 칭칭 높고 경수무풍에 야자파, 물은 풍풍 깊고, 만산은 우루루루루,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장송은 낙낙, 늘어진 잡목 평퍼진 떡갈 다래 몽둥, 칙

녕쿨 머루 다래 어름넌출 능수버들 범난기 오미자 치자 감 대추 갖은 과목 열그러지고 뒤
틀어져서 구비 칭칭 감졌다.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 갈매기 해오리 목포리 원앙새,
강상 두루미, 수많은 떼쟁이 소호시절 기관하던 만수문전에 봉황새, 양양창과 점점 사랑흡
다 원앙새, 칠월칠석 은하수 다리 놓던 오작이, 목포리 해오리 너새 증경새 아옥다옥 이리
저리 날아들제, 또한 경계를 바라보니, 치어다 보니 만학천봉이요,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
땅에 구부러진 늙은 장송 광풍을 못이기어 우줄우줄 춤을 출 제, 시내 유수난 청산으로 돌
고, 이골 물이 쭈루루루루루, 저골 물이 팔팔, 열의 열두골 물이 한데로 합수쳐, 천방자, 지
방자, 월득져, 구부져, 방울이 버금져, 건너 병 풍석에다 마주 팡팡 마주 때려, 산이 요리
내리 가느라고 크게 월득져, 물결높이 떨어져 우루루루루루 팔팔, 뒤둥구러져 산이 울렁거
려 떠나간다.

어디메로 가자느냐. 아마도 네로구나. 요런 경계가 또 있나. 아마도 네로구나. 요런 경계
가 또 있나.